

“수소 국내생산 25% 확정해야”...수소공급 등 미래유망직 NSC 추가

김동용의 수소경제 토크보기

정치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수소 국내생산 25%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소의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 공급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SC)에 수소 공급 직무 등 11개 미래 유망 직무를 추가했다. 그 외 주목해야 할 11월5주차 (11월27일-12월3일) 수소경제 주요 이슈를 돌아봤다.

尹정부, 수소에너지 전환 바람직하지만 그린수소 대거 수입은 에너지자립 위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 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수소 국내 생산 목표를 25%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이현우 한국에너지공단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전 세계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빈곤 최하 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서다.

이 단장은 “해의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t)이 배출되는 하수 슬러지와 음식물·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 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한국의 에너지안보 결정요인으로 △중양집중형 전력망 △미중 패권경쟁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대외 의존형 에너지 수입 구조 등을 꼽았다.

이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하는 국가 선언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생산기업에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최소량을 상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인영 의원도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발맞춰 수소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턱대고 수소 수요를 높

인 뒤 다른 나라에서 그린수소를 대거 수입해 충족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에너지 자립의 가치를 잃을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며 “수소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탄소 저감과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1개 NSC 신규개발...수소경제 패러다임 및 수소 공급 직무 추가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 개발한 11개의 NSC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개선작업을 완료한 NSC를 지난달 28일 확정·고시했다.

NSC는 지난 2월 확정·고시된 1064개에 신규 11개를 더해 현재까지 총 1083개가 개발됐다. 올해 개발·개선된 NSC는 산업계·대국민 의견 수렴과 자정정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17일 확정됐다.

신규 개발된 NSC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 분야에 △인공지능학습데이터구축 △디지털트윈실제·구축 등을 포함했다.

또, 수소경제라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자립 분야의 △수소 공급 직무도 신규 개발했다.

국회서 그린수소 생산·에너지 자립 세미나 개최...“그린수소 자체 생산” 강조 고용부, 수소공급 직무 등 11개 신규 NSC 개발... 기존의 132개 NSC도 개선 현대모비스·현대제뉴인 개발한 수소지게차, 울산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투입

이미 개발된 132개 직무의 NSC도 개선했다. △영상정보처리 △인공지능서비스기획 △스마트인터넷(IoT)통신망구축 △블록체인서비스기획 등의 직무가 개선됐으며, △선박교통관제 △환경시설 운영 직무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개선했다.

이밖에 확정·고시된 NSC의 자세한 사항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소모빌리티 실증사업 킷오프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수소지게차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철 현대글로벌서비스 상무, 김영범 현대서비스 상무, 우형수 울산테크노파크 단장, 김미경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 인성석 울산광역시 사무관, 이재훈 현대제뉴인 상무, 현대모비스 제품

(NCS) 활용범’을 학습자용(학생·취업준비생), 교사자용, 기업용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 ‘NCS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 연료전지 파워팩 탑재한 수소지게차, 울산 수소모빌리티 실증사업 투입

현대모비스가 독자개발한 연료전지 파워팩을 탑재한 수소지게차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 주관하는 수소모빌리티 실증사업에 투입된다.

울산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물류물류연계 상용화 실증’에 투입될 이번 수소지게차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제뉴인이 공동 개발했다.

5분 내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1회 충전으로 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시범 운행은 현대글로벌서비스 KD센터에서 진행된다.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실증 운영 모니터링을 거쳐 주행데이터와 개선점 등이 현대모비스의 연구원구조사로 실시간 전달된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양산형 수소모빌리티 상품성을 강화하고, 연료전지 파워팩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국내 최초로 이동형 연료전지 분야에서 국가인증통합(KCO)을 취득했다.

수소산업 안전 분야를 관리·감독하는 한국가



수소모빌리티 실증사업이 진행되는 현대글로벌서비스 울산 KD 센터에서 작업자가 수소지게차를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제품

스안전전공사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수소제조설비와 수소공급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KC를 취득해야 한다.

H2KOREA, 5~19일 수소산업 분야 기초과정 교육 실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는 5일부터 19일까지 수소에너지 고도화 및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소산업 분야 기초과정 교육(온·오프라인)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소융합 경영 및 경제(5~6일)

△수소·운송용 수소 활용(7~8일) △물리·화학적 수소저장 및 운송(12~13일) △수소 안전 및 표준(14~15일) 등 5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5~6일 ‘수소 융합 경영 및 경제’ 과정만 서울 토즈모임센터 강남컨퍼런스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H2KOREA는 지난달 30일부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마감 기한은 이달 2일까지다. 각 교육과정 개최일 2일 전까지는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각 교육과정당 정원은 15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H2KOREA 기업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용 기자 d0728@sorbiz.com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왼쪽에서 6번째)과 이정문 의원(왼쪽에서 7번째)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 거버넌스 구축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실 제공

이제 홍삼보다 '흑삼'입니다! (주)대한홍삼진흥공사 참조은 흑홍삼!

미국수출기념 70% 초특가 할인판매!
대용량 240g 1세트 4병(4개월)
198,000원 69,800원
2세트(8개월분) 구입시 1세트 더 드립니다!

6년근 홍삼도 좋은데, 구중구포 과정에서 유효 성분이 더 많은 흑홍삼! 단순한 장수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며 최근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지치고 힘든 몸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식품을 찾는다면 '흑삼'을 쉽게 떠올리는데 홍삼에 함유된 사포닌, 즉 진세노사이드의 핵심성분 Rg1, Rb1, Rg3는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진세노사이드 핵심성분이 홍삼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진 '흑삼' 이 등장해 화제를 모고 있다. 흑삼은 건강을 선물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엄선된 최고의 6년근 수삼을 고온에 쪄내 5일갈 말리는 과정을 9번 반복해 40여일 지나 비로소 탄생하는 인삼이 바로 '흑삼'이다. 구중구포를 거친 삼의 형상이 검은색을 띠고 있어 '흑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반복되는 열 숙성처리 과정을 통해 인삼 특유의 구중 구사슬이 절단되어 사포닌 함량과 유효성분이 급격히 증가된 흑삼은 효능이 이미 검증된 특급 사포닌 성분 함량이 홍삼보다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폴리페놀과 같은 새로운 성분도 함유하게 된다. '흑삼'의 제조과정에 담긴 구중구포의 정성은 조선왕실의 건강비책으로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온 방법이다. 왕을 향한 정성과 시간,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흑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소중한 분께 이만큼 좋은 선물도 또 있을까? 출시기념으로 1세트(4개월분) 대용량 240g X 4병을 198,000원에서 70% 초특가할인하여 69,800원에 판매하며 2세트(8개월분)구입시 1세트(4개월분)를 더 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1800-6639로 문의하시면 된다. www.더드림365.com에서 확인하시면 된다. 입금계좌(농협) 301-0236-7453-61 (주)더드림홍삼판매사. 택배비 4,000원 소지자 부담.

혁신적 개별난방 오방한난로가 뭔데 이 난로?

하나면 켜도 후끈후끈! 전기로 부담 덜고 딱딱 매자구요!

올해 여름은 정말 유난히도 끈적였다. 이렇게 습했던 여름은 정말 처음 이었던 것 같다. 올 겨울은 유난스레 춥다고 매스컴에서도 난리다. 이 추운 겨울을 단숨에 털어내고 강한 난로가 출시되다 화제다. 오방한난로다. 다양한 환경에서 원하는 만큼 5방향 난방! 세분화된 타이머 선택 기능으로 원하는 시간에 딱! 전기로 절감효과! 편리한 이동버튼, 간편한 사용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따뜻하게! 개별버튼으로 개/별/난/방을 실현한 획기적 설계! 원하는 방향을 마음대로! 원하는 개수도 마음대로! 혁신적 개/별/난/방!! 절/전/난/방!! 넓고 탄탄한 철 상판으로 무거운 주전자를 올려도 폭 거치지 않고 360도 회전버튼으로 어디든 자유롭게! 만에 하나 넘어져도 자동으로 전원차단! KC 안전인증 획득까지! 말 그대로 다섯방향으로 열기가 뿜어져 나와 뜨끈뜨끈하다. 팝팝~한 장마철에 습기 제거! 어슬어슬~환절기에 온도조절, 습도조절로 건강하게 4개월 전후 사용으로 가성비 갑! 가정에는 물론 오피스텔, 업소에도! 아이 공부방에도, 추운 경비실에도 따뜻하게 그들을. 밤새 걱정 없는 전기난로라 쾌적하게 미려한 문살무늬에 산뜻한 디자인까지, A/S도 전국 어디든 확실하다. 전력은 220V 60Hz 2000W이고 크기는 넓이 26cm 깊이 26cm 높이가 50cm이고 중량은 약 3.2kg이다. 자연계효율까지~ 출시기념으로 160,000원을 최대 50% 할인하여 79,800원에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더드림365.com 또는 전화 1800-6639로 문의하면 된다. 입금계좌(농협) 301-0236-7453-61 (주)더드림홍삼판매사. 택배비 4,000원은 소비자 부담이다.